

‘소규모 모임 전파 막아야’

군산시 오늘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공원·광장 야간 음주·취식 행위제한

군산시는 26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공원과 광장 내에서의 야간음주·취식행위 등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으로 은파호수공원과 근린공원 등 모든 공원과 광장에서 22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공원 내에서의 음주 및 취식행위가 금지된다.

이같은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인 유흥시설 및 다중이용시설등의 영업시간이 22시로 제한됨에 따라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해 근처 공원 등의 야외에서 음주를 즐기려는 시민들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감염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다.

행정명령 위반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대규모 집단 감염이 아닌 가족과 지인 모임 등 소규모 모임을 통한 감염확산이 증가하고

있다.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시민 모두가 불필요한 이동과 만남을 제한하고 방역수칙 준수 등 많은 협조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른 방역수칙이 보완돼 편의점은 식당·카페와 동일하게 22시 이후 편의점 내 취식이 금지되며, 식당·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이 가능한 야외 테이블·의자 등도 22시 이후 이용이 금지된다. /군산=한경봉 기자

“전면 재평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군산시의회, 군산대 재정지원 탈락에 교육부 방문·건의문 전달

군산시의회는 교육부의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 발표에 반발해 25일 교육부를 방문하여 건의문을 전달하였다.

지난 17일 교육부는 총 186개 일반대와 133개 전문대를 대상으로 진행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국립대학교인 군산대학교가 일반재정지원대학에 미선정되어 지역사회는 큰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이에 군산대 및 총동문회 등은 대학본부와 전라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반박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지역사회에 반발이 확산하고 있고 군산대는 20일 교육부에 선정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산시의회 김영일 부의장 등 시의원 7명은 ‘군산대학교 대학 기본역량평가 가결과 철회 및 재평가 촉구 건의문’을 교육부

에 제출하고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 등과 면담을 가졌다.

군산시의회는 건의문에서 “군산대학교는 이번 가결과 발표로 인하여 국립대학교로서의 위상에 큰 상처를 입었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무척 우려스럽다.”며 “이번 평가에서 객관적 지표로 평가되는 정량평가에서는 낮은 점수를 취득하는 결과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한다.”고 했다.

또한 “정성평가의 지표 중 교과과정 운영 및 개선, 학생학습역량 지원, 진로·심리상담지원, 취·창업 지원분야는 군산대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역량 강화 분야로 인프라 강화를 확충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왔던 분야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더욱 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교육부는 군산을 대표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국립군산대학교에 대한 대학기본역량평가 가결과를 철회하고 전면 재평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군산시의회 김영일 부의장은 “이번 교육부의 발표에서 군산대학교는 전국 26개 4년제 미선정 대학 중 유일하게 국립대학교로 포함되어 있다.”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국립대학교인 군산대를 재정지원 대학에서 탈락시킨 교육부는 이번 결과를 전격 철회하고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결과를 다시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군산시의회는 8월 말에 있을 최종결과 발표 전까지 정치권 및 지역사회, 그리고 동문회 등과 함께 교육부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군산=한경봉 기자

익산시, 세계유산 미륵사지 메타버스 구현 시동

익산시가 세계유산 미륵사지의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플랫폼 구축사업 기초작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가정 세계유산 미륵사지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해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 동아시아 최대 사찰터였던 미륵사지를 복원할 예정이다.

시는 25일 첨단기술, 역사문화, 불교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미륵사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유병관(주)퓨처월드 포 본부장의 기초강연 및 영상시연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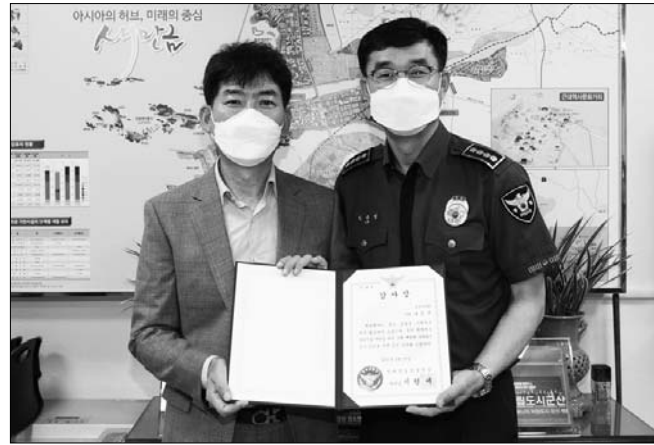
기조강연 후 전문가들은 세계유산 미륵사지 플랫폼 구축의 방향성과 실현 가능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가상과 현실세계가 혼합되는 메타버스를 통해 미륵사지를 새롭게 해석한 문화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특히 역사적 문화재인 동시에 불교사적 의미가 큰 미륵사지를 활용해 이용객들의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를 제공, 역사·문화 관광지의 입지를 강화한다.

시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제안들을 바탕으로 차후 가상현실로 복원된 미륵사지 플랫폼을 통해 지역민의 역사의식 강화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이울러 복원이 어려운 문화유산에 대해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군산시의회 나종대 의원이 25일 범죄 취약계층의 범죄예방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북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전북경찰청장 ‘감사장’ 받아

군산시 나종대의원, 범죄 취약계층 예방 공로

군산시의회 나종대 의원이 25일 범죄 취약계층의 범죄예방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북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나종대 의원은 지난 4월 기초생활수급자 등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군산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협업체계 구축을 강화하고자 ‘군산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는 범죄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방범문, 방범창, 방범등,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폐쇄회로 텔레비전, 네트워크 카메라 등) 및 침호용 잠금장치, 경보장치 등에 대한 설치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군산시와 군산경찰서와의 협업체계 구축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향후 범죄 취약계층에 대

해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군산경찰서 측은 이 조례안의 개정으로 경찰서가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범죄예방 사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군산시와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종대 의원은 초선 시의원으로서 제8대 경제건설위원회 부위원장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왔던 등 인정받고 있다.

나종대 의원은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을 돌보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국제라이온스 군산연합회, 마스크 2만개 기부

군산시는 국제라이온스협회 356-C(전북)지구 군산지역연합회(부총재 박태영)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해 KF94 마스크 2만개를 기탁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제라이온스협회는 소외된 곳을 찾아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국제봉사단체로 이번에 기탁된 마스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단체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기탁식에 참석한 박태영 부총재는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에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위료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소외된 이웃을 위한 봉사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라이온스협회 군산지역연합회는 지난 1978년 설립 이래 무료급식소·경로식당 봉사활동, 은파호수공원 수목기증, 군산 이주여성 합동결혼식 진행 등 꾸준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군산=남현봉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로컬푸드 인증제 시행

군산시는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군산 로컬푸드 인증제’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인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군산 로컬푸드 인증제’는 농산물의 생산 및 품질을 일정한 기준으로 검사하고, 생산된 농산물에 인증마크를 표시해 ‘누가,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떻게 생산했는가?’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고, 시가 안전성을 확보한 농산물을 인증하는 제도다.

시는 먼저 로컬푸드직매장 출하 농가 중 상반기 인증제 의무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의 출하 예정일 50일 전까지 신청을 받아 생산단계 현장조사, 농산물의 잔류농약검사, 토양검사의 절차를 거쳐 농업인 인증·필지 인증을 부여하고 로컬푸드의 안전성 관리체계를 실행해 나간다. /군산=고병민기자

군산시 미등록 외국인 예방접종 지원

군산시는 미등록 외국인들이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 예약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미등록 외국인들의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예약을 지원하고 접종률 향상과 감염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대상은 만18세 이상(2003년부터) 미등록 외국인으로 26일부터 오는 31일(단, 주말 제외)까지 자정 자동차용합기기술원 생활관 및 생활체육공원 앞에서 예약 지원을 실시한다.

시는 미등록외국인들에게 임시번호를 발급 후 질병관리시스템 대상자에 등록 및 예약을 실시하며 외국인들은 여권 또는 주한공관 발급 신분증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만18세부터 29세 외국인들에게는 28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는 mRNA(화이자 또는 모더나)백신을 접종하며 만30세 이상 외국인에게는 지난 24일부터 오는 9월 18일까지 안센백신을 접종한다. /군산=한경봉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